

주간 통일정세

2017-29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7.15	北 김정은, 몽골 신임대통령에 인사(연합뉴스)
	7.17	김정은 원수 칭호 5주년...北 매체 일제히 찬양(연합뉴스)
	7.18	北, '화성-14' 성공 앞세워 경제분야 성과 독려(연합뉴스)
	7.19	北, 제재 속 '국산화' 부각...제재 무용론 선전 의도(연합뉴스)
군사	7.15	38노스 "北 두 차례 핵 재처리로 플루토늄 추가 생산"(연합뉴스)
	7.19	"北, 미사일 美본토까지 날릴 능력 갖춰...ICBM 유도기술은 아직"(연합뉴스)
	7.20	CNN "北, 2주내 ICBM 또는 IRBM 추가발사 준비 정황 포착"(연합뉴스) "러시아, 北 '화성-14' 발사 장소 평북 동창리 주장"(연합뉴스)
경제	7.17	北, 평남 순천 인비료공장 착공..."농업발전 이바지해야"(연합뉴스)
	7.19	北, 中박람회 잇단 참가...원난성 상품전시회 첫 참여(연합뉴스)
	7.21	유엔 제재에도 북한 무역규모 늘어...지난해 4.7% ↑(연합뉴스)
사회 문화	7.17	北에도 '밀맥주' 등장...대동강맥주공장서 생산(연합뉴스)
	7.18	北 체육상 "유엔 제재로 체육활동도 난관 직면"(연합뉴스)
	7.19	"北, 해외파견 근로자 자격 대폭 강화"(연합뉴스)
		北, 에너지난 극복 위해 풍력·태양광 활용 확산(연합뉴스) 北에서도 카드 사용 일상화..."약수 구매까지"(연합뉴스)
	7.20	"北, '나선해안맥주축전' 20일 개막"(연합뉴스) 北, 자강도에도 스키장 건설..."리프트 자체 제작"(연합뉴스)
외교 국방	7.15	北 "미국은 남한서 모든 전쟁장비 즉각 철수하라" 요구(연합뉴스)
		北 "미국이 우리 외교행낭 강탈했다"...유엔서 선전전(연합뉴스)
		英 의원 "北과 외교관계 격하해야" 주장(연합뉴스)
	7.18	北 외무성 "美정부, 압수 외교행낭 전부 반환하고 공식사죄"(연합뉴스)
	7.19	美 상원 동아태 위원장 "군사수단 동원해서라도 北 저지"(연합뉴스)
		北, 북러공동선언 띄우기..."북러관계, 세계평화에 유익"(연합뉴스)
7.20	北 노동당 대표단, 이란 방문...반미공조 강화하나(연합뉴스)	
	美 하원의원, 北 노동자 송출에 "국제 노예무역" 비난(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7. 15.

■ 北 김정은, 몽골 신임대통령에 인사(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몽골 대통령으로 당선된 칼트마 바툴가에게 보내는 인사를 11일 홍규 몽골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함.
- 이날 홍 대사는 몽골 대통령을 만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사도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7. 17.

■ 김정은 원수 칭호 5주년…北 매체 일제히 찬양(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5주년을 맞아 그를 ‘천출위인’이라며 일제히 찬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5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며 “김정은 동지는 온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며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이라고 칭송함.
- 이어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선군의 기치, 병진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7. 18.

■ 北, ‘화성-14’ 성공 앞세워 경제분야 성과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군수 분야의 실적을 본보기로 경제 분야 전반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기어이 다수화 통장훈(외통장군)을 부르자’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이라는 특대 사변이 터져 오른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전야(논밭)에서도 승리의 축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독려함.
- 신문은 강원도 내 주요 생산현장의 성과들을 소개하며 “(강원)도 당위원회에서는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소식에 접하고도 안의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진공적(공세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치켜세웠음.

2017. 7. 19.

■ 北, 제재 속 ‘국산화’ 부각…제재 무용론 선전 의도(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들어 ‘국산화’에 총력을 쏟는 북한이 최근 제재로 수입이 가로막힌 원료나 부속품의 자체 생산 사례를 잇달아 선전하고 있음.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제재 속에서도 더 높이 울리는 웃음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놀이기구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한 평양 개선청년공원 유희장(놀이공원)을 소개함.
- 김광훈 개선청년공원 관리소 기사장은 “종전에는 유희장 설비 부속품을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그마저도 제재로 인해 들여올 수가 없게 됐다”고 이 매체에 밝혔으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민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말자고 결의하고 설비 부속품들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고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7. 15.

■ 38노스 “北 두 차례 핵 재처리로 플루토늄 추가 생산”(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가을부터 최소 2차례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핵탄두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원료를 추가로 생산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4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과학연구단지를 촬영한 위성 열사진(thermal imagery)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이 간헐적으로 가동했고,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분명히 최소한 두 차례의 알려지지 않았던 재처리 활동이 있었다”면서 “플루토늄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38노스는 “이는 분석 기간에 5MWe급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가 지속적이 아닌 일괄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으며, 영변 핵 단지의 우라늄농축시설에 대해 “열을 내는 활동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면서 “이것이 원심분리기 가동의 결과인지, 관리 활동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함.

2017. 7. 19.

■ “北, 미사일 美본토까지 날릴 능력 갖춰…ICBM 유도기술은 아직”(연합뉴스)

-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도 및 통제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밝힘.
- 셀바 차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의 재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지난 4일 첫 ICBM 발사 시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함.
- 셀바 차장은 먼저 “나는 원칙적으로 북한이 ICBM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단언하면서도, “7월 4일의 ICBM 발사 시험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 또는 합리적 자신감, 성공 가능성을 갖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그것(미 본토 정밀타격)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2017. 7. 20.

■ **CNN “北, 2주내 ICBM 또는 IRBM 추가발사 준비 정황 포착”(연합뉴스)**

-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 CNN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관련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 관리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한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방출 흔적이 감지되었음.
- 미국 당국은 북한이 이달 초 ICBM을 처음으로 발사한 이후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관련 레이더와 통신들을 정밀 감시하고 있음.

■ **“러시아, 北 ‘화성-14’ 발사 장소 평북 동창리 주장”(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 장소도 미국 등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정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동창동 미사일 발사장’ 즉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명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그러면서 이 지역이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밝힌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일대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다른 주장임.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7. 17.

■ 北, 평남 순천 인비료공장 착공·“농업발전 이바지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농업생산을 늘려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 인비료공장 건설에 착공했는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순천인비료공장이 새로 일떠서게 된다”면서 전날 현지에서 착공식이 열렸다고 전함.
-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건설자들과 일꾼들이 미제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무진 막강한 주체 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면서 ‘자강력제일주의’와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자고 호소함.
- 이날 착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평안남도 당위원장, 장길룡 화학공업상 등이 참석함.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7. 19.

■ 北, 中박람회 잇단 참가·윈난성 상품전시회 첫 참여(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무역박람회에 잇달아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일 코트라 청두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남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지난 달 12~18일 열린 ‘2017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 상품전 및 투자무역 상담회’에 북한 기업 7개 사(社)가 최초로 참가함.
- 북한 기업들은 국제관에 부스 7개를 마련하고 고려인삼·웅담·담배·유화·우표·공예품 등을 선보였으며, 현장에서 중국어로 관측이 가능한 인력도 있었으며, 청두 무역관은 “북한의 첫 윈난성 현지 대형전시회 참가로 (북한관이)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함.

2017. 7. 21.

■ 유엔 제재에도 북한 무역규모 늘어…지난해 4.7%↑(연합뉴스)

- 유엔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1일 코트라가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무역규모는 65억 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함.
- 2010~2014년 5년간 꾸준히 늘던 북한 무역규모는 2015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지난해는 3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비군사적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역규모 증가는 이례적임.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7. 17.

■ 북에도 ‘밀맥주’ 등장…대동강맥주공장서 생산(연합뉴스)

- 북한이 대동강맥주 공장에서 밀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대동강맥주축전’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 공장 한형철 과장의 말을 인용해 “최근 대동강맥주 공장에서 새 품종의 맥주를 개발하여 생산을 시작했다”며 “밀맥주라고 부르는 새 품종의 맥주가 머지않아 진행될 제2차 평양대동강맥주축전에서 첫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한 과장은 “보리와 함께 밀을 주원료로 하는 새 품종의 맥주는 효모와 밀이 조화롭게 어울려 내는 독특한 향기와 첨단양조기술에 의하여 이전 맥주들보다 그 풍미가 진하다”고 소개하며 “거품성이 좋고 흐림도가 짙은 밀맥주는 맥주 가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안아온 제품으로서 축전에서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2017. 7. 18.

■ 北 체육상 “유엔 제재로 체육활동도 난관 직면”(연합뉴스)

-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유엔의 부당한 대북제재로 북한에서의 체육 활동이 난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김 체육상은 지난 13~15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6차 체육장관 회의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항목에 추가한 사치품 목록에 대중체육 기재도 포함됐다고 이같이 주장함.
- 그는 “지금 일부 나라들은 유엔 안보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를 이행한다는 미명 하에 우리에게 스키, 빙상호케이채(아이스하키 스틱), 등산신발, 경기용 총과 총탄, 활과 화살을 비롯한 체육 기재들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국제체육연맹들이 무상기증하는 체육 기재까지 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함.

2017. 7. 19.

■ “北, 해외파견 근로자 자격 대폭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해외 파견근로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 지방에서의 모집을 중단하고 평양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 5월부터 대외건설총국에서 시행하던 러시아 파견근로자 모집이 대폭 축소되었다”면서 “현재 지방에서의 모집은 중단되었고 평양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계기로 해외파견 근로자를 출신 성분이 좋고 자녀가 있는 평양 시민을 위주로 모집하고 있음.

■ **北, 에너지난 극복 위해 풍력·태양광 활용 확산(연합뉴스)**

-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이 최근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등 자연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양강도 삼지연군의 개발 상황을 전하며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베개봉 일대에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가 새로 일떠서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건설자들은) 단 이틀 동안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풍력발전기 1호기의 설치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며 “돌격대원들은 풍력발전기 2호기, 3호기 설치 준비사업을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함.

■ **北에서도 카드 사용 일상화…“약수 구매까지”(연합뉴스)**

- 북한에서 우리의 생수에 해당하는 약수 구매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전자결제 문화가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음.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새로 리모델링한 평양 옥류약수상점을 소개하면서 “약수 공급실에서는 전자결제카드에 의한 약수 봉사도 이행하였다”고 전함.
- 이어 “손님들은 10여 대의 카드식 전자결제기가 설치되어있는 공급실에서 필요한 양의 약수를 공급받는다”면서 “상점의 하루 약수 공급량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함.

2017. 7. 20.

■ **“北, ‘나선해안맥주축전’ 20일 개막”(연합뉴스)**

- 캐나다의 대북교류 비영리단체 ‘백두문화교류사’(PCE)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나선지구에서 ‘나선해안맥주축전-2017’을 개최함.
- 이 단체는 “나선시 안의 맥주 애호가들과 관광객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열리게 되는 이번 축전에는 시 안의 주민들과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참가한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축전에서는 나선시에서 생산하는 체코 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맥주를 선보이며 ‘맥주 맛 알아맞히기’, ‘맥주 상식경연’과 다양한 예술 공연도 펼쳐질 예정임.

■ **北, 자강도에도 스키장 건설...“리프트 자체 제작”(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에 이어 자강도 강계시에도 대중용 스키장을 건설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스키장 건설 힘있게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강도) 강계시 석조지구에 건설되는 스키장에는 스키 주로와 썰매 주로, 식당, 침실, 문화후생 시설과 주차장 등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밝힘.
- 신문은 “스키장은 겨울철에 눈이 오지 않아도 수원지의 물로 눈을 생산하여 눈포(인공제설기)로 스키장에 쏘아주게 되어있으며 눈다짐기로 다짐 작업을 하여 스키를 타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소개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7. 15.

■ **北 “미국은 남한서 모든 전쟁장비 즉각 철수하라” 요구(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한에서 모든 전쟁장비를 즉각 철수시키라고 요구함.
- 북한 대외 선전 단체인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주한미군)을 핵무장화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60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미국이 이듬해 1월 29일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을 정식 발표했으며 1980년 중반까지 남한을 1천720여개의 핵무기들이 들어찬 핵 전초 기지로 전략시켰다고 강변했으며, 이어 미국이 오늘날에도 핵전략 자산들을 수시로 끌어들이며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함.

■ **北 “미국이 우리 외교행낭 강탈했다”...유엔서 선전전(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경전을 초래한 ‘외교행낭’ 사건과 관련해 유엔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북한 매체가 15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부의 제기로 유엔 주최국(회원국)과의 관계위원회 회의가 13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었다”면서 “회의에서는 최근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부의 외교신서물(외교행낭)에 대한 미국의 강탈사건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전함.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회의에서 외교행낭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번 행위를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행위, 국제법을 위반한 극악한 도발 행위로 단죄·규탄한다”고 주장함.

2017. 7. 18.

■ **北 외무성 “美정부, 압수 외교행낭 전부 반환하고 공식사죄”(연합뉴스)**

- 미국 당국이 최근 미국 뉴욕 공항에서 압수했던 북한 대표단의 외교행낭을 북한 측에 반환하고 공식 사죄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18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미국 정부가) 신서물(행낭)을 우리측에 전부 반환하였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성(국무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보안 관계자들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미국 내 안보가 매우 불안정하고 보안 관계자들의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데로부터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 대하여 이해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 사죄하였다”고 밝힘.

2017. 7. 19.

■ **美 상원 동아태 위원장 “군사수단 동원해서라도 北 저지”(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간단명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미국은 모든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군사적 수단까지 배치해서 북한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모든 옵션(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덧붙임.

2017. 7. 20.

■ **美 하원의원, 北 노동자 송출에 “국제 노예무역” 비난(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노예무역’(slave trad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밝힘.

- RFA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의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북한은 노예 무역상(North Korea is a slave trader)”이라고 주장함.
- 그는 “국내에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 뿐 아니라 국제 노예무역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난하고 “이는 국가가 지원한 인신매매이자 노예제”라고 언급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7. 19.

- **北, 북러공동선언 띄우기…“북러관계, 세계평화에 유익”(연합뉴스)**
 - 중국과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는 북한이 19일 북·러 공동선언 채택 17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7돌이 되었다”면서 “조로 공동선언은 21세기 조로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7월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조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조로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유익하다”고 주장했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7. 15.

■ 英 의원 “北과 외교관계 격하해야” 주장(연합뉴스)

-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이 영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엘튼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주제로 한 영국 상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함.
- 그는 평양 내 영국대사관의 존재는 북한 당국에 의해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북한 정권에 ‘헛된 정당성’(veneer of legitimacy)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만, 북한 주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함.

2017. 7. 20.

■ 北 노동당 대표단, 이란 방문..반미공조 강화하나(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류명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세예드 메흐디 줄라이 이란이슬람교연합당 제1부총비서 사이의 회담이 17일에 진행됐다”고 밝힘.
- 류 부부장은 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조선노동당과 인민은 자위적 국방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슬람연합당 관계자는 과거 김일성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이란 인민은 조선 인민과 함께 미국과 서방의 고립·압살 책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18		美, 남북회담 제의에 “韓정부에 물어보라” 반응 자제(연합뉴스)
			美, 남북회담 제의에 “지금은 대화조건서 멀어” 부정적 반응(연합뉴스)
		정부 “美 회담제안 충분히 이해...한미간 큰 차이 없어”(연합뉴스)	美의회 ‘한반도 긴장’ 거론 USTR에 “한미FTA 신중협상 하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17		中외교부, 韓 남북회담 제의에 “정세 완화 도움” 환영(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7.16	북태평양 콩치어획 쿼터제 무산...韓中 “日편중 배정” 반대(연합뉴스)	
	7.18		日외무상, 韓 대북회담 제의에 “지금은 압력 가할 때”(연합뉴스) 日 ‘위안부 합의 위법지시’ 문건에도 “합의 착실하게 이행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7.19		크렘린궁 “한반도 비핵화 입장 불변...관련국 긴장고조 말라”(연합뉴스)
	7.20		러 외무부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 지지”(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15	미국 前국방 '북핵 동결론' 제안... "중국과 먼저 담판지어야"(연합뉴스)		
	7.17	中, 美의 대북불법거래 중기업수사에 긴장...세컨더리보이콧 가나(연합뉴스)		
	7.18		中, 남북대화 부정적 반응 보인 美에 "방해하지 말라"(연합뉴스)	
			美 전 CIA국장 "미중 핵심이슈는 통상·남중국해 아닌 북핵"(연합뉴스)	
	7.19	美친한파 의원 "中·러, 대북제재에 예외두거나 못본척"(연합뉴스)		
				中, 美의 이란 신규제재에 중기업 포함되자 강력 반발(연합뉴스)
				中, 美와 '포괄적 경제대화' 앞두고 "북중무역은 정당" 강조(연합뉴스)
	7.20	미·중 경제대화, 빈손으로 막내려...양측 신경전 '팽팽'(연합뉴스)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서 무역불균형 '서로 네 탓' 책임공방(연합뉴스)	
	7.21		'빈손' 미중경제대화 지적에 발끈한 中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연합뉴스)	
		中 "중·미 포괄적 경제대화서 '철강과잉' 대응조치 합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7.21	주일미군, 이지스함 요코스카 추가배치 연기(연합뉴스)		
		미국무부 "위안부 문제는 주요한	日방위상 "한일 위안부 최종	

		관심사, 그러나 민감한 문제”(연합뉴스)	합의...일본 의무 다했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19	트럼프, G20 때 푸틴 두번 만났다...“만찬中 옆자리로 찾아가”(연합뉴스)	
	7.20	트럼프-푸틴 비밀회동에 ‘국익훼손·외교결레’ 논란 가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17		日 아베 "중의 '일대일로', 조건 맞으면 협력하겠다”(연합뉴스)
		中해경선 4척, 분쟁중 센카쿠 열도주변 또 진입...日 강력항의(연합뉴스)	
			“日, 중국에 수차례 대북 석유류 수출제한 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7.20	중러 군사훈련에 국제사회 우려일자 中 “제3국 겨냥 아냐”(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7. 18.

■ 美, 남북회담 제의에 “韓정부에 물어보라” 반응 자제(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데 대해 논평을 자제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논평 요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남북 회담을 제의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에 문의하도록 하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김.

■ 美, 남북회담 제의에 “지금은 대화조건서 멀어” 부정적 반응(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것과 관련,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
- 슌 스페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달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함.
- 이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북한에 민·군 두트랙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美의회 ‘한반도 긴장’ 거론 USTR에 “한미FTA 신중협상 하라”(연합뉴스)

-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보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강력히 요청함.
- 무역 협상 관련 위원회의 ‘빅4’로 불리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케빈 브랜드 하원 세입위원장(공화·

유타)과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함.

- 이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행정부의 독주와 일방적 협상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전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정부 “美, 회담제안 충분히 이해…한미간 큰 차이 없어”(연합뉴스)

- 정부는 18일 남북회담 개최 제의에 미국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 조건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이 우리측의 사전설명을 통해 회담제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상태였다고 밝힘.
- 조 대변인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우리 정부와 같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 그러면서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회담 제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으며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7. 21.

■ ‘빈손’ 미중경제대화 지적에 발끈한 中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연합뉴스)

- 무역 불균형 해결에 초점을 맞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가 큰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평가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서로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도 이번 대화가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중 양국이 중국의 엄청난 대미 흑자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공동성명은 물론 예정된 기자회견마저 취소할 정도로 팽팽히 맞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외신들의 평가에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섬.
- 이 경제대회에 중국측 대표로 참석했던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20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양국이 무역 불균형의 한 해결방법으로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으로 해석됨. 中 “중·미 포괄적 경제대화서 ‘철강과잉’ 대응조치 합의”

■ 中 ”중·미 포괄적 경제대화서 ‘철강과잉’ 대응조치 합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양국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중국 측이 회담 하루 뒤인 20일(현지시간) 밝힘.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회담의) 브레이크아웃 세션 동안 양측은 철강, 알루미늄, 첨단기술 무역에 대한 토론에 초점을 맞췄다”며 “양측은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능력 절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며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힘.
- 애초 회담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핵심 이슈’인 철강 문제에 있어 진전을 이뤘다는 주장임.

나. 한·중 관계

2017. 7. 17.

■ 中외교부, 韓 남북회담 제의에 “정세 완화 도움” 환영(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의한 것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남북 대화를 통한 상호 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밝힘.
- 루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측은 일련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남북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며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2017. 7. 16.

■ 북태평양 공치어획 쿼터제 무산··韓中 “日편중 배정” 반대(연합뉴스)

- 일본이 북태평양에서 국가별 공치 어획량 쿼터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한국과 중국 등이 ‘일본 편중 배정’이라며 반대에 무산됨.
- 16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서 열린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서 공치 자원 보호를 위해

국가별 어획량 쿼터를 정하자고 제안함.

- 일본 측은 연간 총 어획량을 56만t으로 정하고 일본 24만2천t, 대만 19만, 중국 4만6천t, 한국 2만t 등을 할당하자고 주장함.

2017. 7. 18.

■ **日외무상, 韓 대북회담 제의에 “지금은 압력 가할 때”(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고 주장함.
-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 한미일의 의사소통과 연대를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북한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日 ‘위안부 합의 위법지시’ 문건에도 “합의 착실하게 이행해야”(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한일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위법한 지시를 한 문건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에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
-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문건의 발견이 합의 수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인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국에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 내부의 문건인 만큼 코멘트를 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하며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합의”라고도 강조함.

라. 한·러 관계

2017. 7. 19.

■ 크렘린궁 “한반도 비핵화 입장 불변…관련국 긴장고조 말라”(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국들에 자제를 촉구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예정된 1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국들의 정치·외교적 노력 지속을 지지하며, 모든 관련국이 자제하고 추가적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는 과격한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이날 열리는) 국가안보회의의 구성원들과의 회동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가 논의될 것인가’란 질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그와 유사한 긴급회의들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고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면서 북핵이 안보회의의 의제임을 확인함.

2017. 7. 20.

■ 러 외무부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 지지”(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당국 회담 및 적십자 회담 제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 외무부 공보국 아르? 코쥘 부국장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회담 제의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받고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모든 평화적 제의를 지지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을 부정적으로 보며 북한의 타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대결 수위 고조를 초래하는 다른 나라(한국, 미국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7. 15.

■ 미국 前국방 ‘북핵 동결론’ 제안…“중국과 먼저 담판지어야”(연합뉴스)

-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아닌 동결을 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미리 큰 틀의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직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나옴.
- 이 견해는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나온 것으로 북핵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와 맞닿을 수 있어 주목됨.
- 가장 먼저 게이즈 전 장관은 “한반도 내 전면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군사적 선택은 일단 협상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함.

2017. 7. 17.

■ 中, 美의 대북불법거래 中기업수사에 긴장…세컨더리 보이콧 가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단둥(丹東)은행 거래 중단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과 불법거래를 했다면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함.
- 이에 중국은 일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민생’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으나, 압박과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데 주목하고 있음.
-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조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2017. 7. 18.

■ 中, 남북대화 부정적 반응 보인 美에 “방해하지 말라”(연합뉴스)

-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나섬.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영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힘.

-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어제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 개선, 화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모든 유관국이 남북 양측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함.

■ **美 전 CIA국장 “미중 핵심이슈는 통상·남중국해 아닌 북핵”(연합뉴스)**

-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7일(현지시간)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북 제재를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이날 미국 보스턴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이는 북한을 설득해 ‘외교적 합의(diplomatic accord)’를 수용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함.
-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역대 행정부들 때와는 매우 다른 대북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됨.

2017. 7. 19.

■ **美친한파 의원 “中·러, 대북제재에 예외두거나 못본척”(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 중 한 명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두 나라 모두 대북 제재에 예외를 두려고 하거나 (제재를) 못 본 척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함.
- 코널리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하원 의원회관에서 전직미국의원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대북 경제 제재 옵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는 더 많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미) 제재 법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옵션이 얼마나 제한돼 있는지를 생각하며, 어떤 지렛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함.

■ **中, 美의 이란 신규제재에 中기업 포함되자 강력 반발(연합뉴스)**

-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테러단체 지원 활동과 관련, 신규 제재 대상으로 정한 개인과 단체 18곳 가운데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되는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핵확산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유관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다른 국가를 제재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함.
- 루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이런 신규 제재는 유관 각국의 상호 신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 **中, 美와 ‘포괄적 경제대화’ 앞두고 “북중무역은 정당” 강조(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를 앞두고 북·중 무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섬.
- 루이는 미중 경제대화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 무역거래를 문제 삼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보임.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음.

2017. 7. 20.

■ **미·중 경제대화, 빈손으로 막내려…양측 신경전 ‘팽팽’(연합뉴스)**

- 차후 미·중 관계의 기늩자로 주목받았던 ‘포괄적 경제대화’(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으나 빈손으로 막을 내림.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국의 최고위 경제관료들은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다 산적한 양국 간 경제 현안과 관련해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함.
- 이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함.

■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서 무역불균형 ‘서로 네 탓’ 책임공방(연합뉴스)**

-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침.

- 미국이 ‘공정한 통상’을 요구하면서 중국 시장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압박하자, 중국은 현재 양국 무역불균형은 미국이 자초한 것이라며 대중 첨단제품 수출을 허가해 적자를 줄이라고 맞섬.
- 미국 측 대표인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경제대화 시작에 앞서 “무역 관계 불균형과 시장 접근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고 자연스러운 자유무역의 결과가 아니라고 날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나. 미·일 관계

2017. 7. 21.

■ 주일미군, 이지스함 요코스카 추가배치 연기(연합뉴스)

- 주일미군이 올 여름으로 예정했던 이지스 구축함 밀리우스의 일본 요코스카(横須賀) 기지 배치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는 수리와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전해짐.

■ 미국무부 “위안부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 그러나 민감한 문제”(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말함.
-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방침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음.

다. 미·러 관계

2017. 7. 19.

■ 트럼프, G20 때 푸틴 두번 만났다..“만찬中 옆자리로 찾아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나타남.
- 18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정상의 비공식 만남은 공식 양자회담과 같은 날 열린 G20 정상들의 만찬 자리에서 이뤄짐.
-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중간쯤 자리에서 일어나 푸틴 대통령에게 다가간 뒤 옆자리에

았었다고 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고위 관료가 WP에 전했다며,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ABC뉴스에 “만찬이 끝나갈 때 대통령이 푸틴에게 말을 걸었다”며 다소 엇갈린 설명을 내놓음.

2017. 7. 20.

■ **트럼프-푸틴 비공개 회동에 ‘국익훼손·외교결례’ 논란 가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공개 회동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
-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뤄진 둘 사이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 등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뒤늦게 폭로됨.
- 무엇보다 당시 비공식 만남의 형식과 과정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고 외교적 의전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미 언론들을 중심으로 제기됨.

라. 중·일 관계

2017. 7. 17.

■ **日 아베 “중의 ‘일대일로’, 조건 맞으면 협력하겠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중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원유나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퉁취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각각 4~5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이같이 요청함.
- 그러나 시 주석은 “제재는 중요하지만 대화도 중시하고 있다.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답함.

■ **中해경선 4척, 분쟁중 센카쿠 열도주변 또 진입...日 강력항의(연합뉴스)**

- 일본이 ‘바다의 날’로 기념하는 17일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 다오<釣魚島>) 열도 주변 일본 영해로 침입했다고 NHK가 보도함.
-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 열도 먼바다 일본 영해에 들어와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북북서쪽 18~22km에서 항해한 것을 확인하고 영해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이들 중국 해경선은 15일 오전부터 일본 영해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함.

■ **“日, 중국에 수차례 대북 석유류 수출제한 요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중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원유나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쿵취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각각 4~5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이같이 요청함.

마. 중·러 관계

2017. 7. 20.

■ **중러 군사훈련에 국제사회 우려일자 中 “제3국 겨냥 아냐”(연합뉴스)**

- 중국 해군이 ‘중러 해상연합-2017’ 훈련을 위해 오는 21일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훈련이 중국의 군사확장으로 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발트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데다가 이번 훈련은 중국 해군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이뤄지는 연합훈련이라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군사굴기(崛起·우뚝 섬)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18	北인권보고관 “인권개선, 남북관계에 우선순위 메시지 줘야”(연합뉴스)
	7.18	“토대종교 자녀있는 평양주민만 해외노동 자격”(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7.20	북, 수해복구 핑계로 주민 총동원(자유아시아방송)
	7.21	FAO “북한 가뭄 2001년 이래 최악…이모작 30% 감소”(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7.17	강경화 “北 인권상황 큰 우려사항”…유엔 北인권보고관 접견(연합뉴스)
		정부, 유엔 北인권보고관에 “北억류 한국인 관심” 요청(연합뉴스)
	7.19	대북인권단체, ‘북한 인권범죄 지도’ 작성·공개(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7.16	국내 방송 출연 탈북여성, 北 선전매체 등장해 南 비난(연합뉴스)
	7.17	한국 정부, 남북 이산가족상봉회담·군사회담 동시 제안(미국의소리)
	7.18	HRW “중, 라오스 국경 탈북자 체포 증가”(자유아시아방송)
		하태경 “김정은 집권 이래 탈북 후 재입북 25건”(연합뉴스)
대북지원	7.15	유엔연구기금, 대북지원 5개년 계획 마련…1천만 달러 투입(미국의소리)
	7.18	러시아, 북한에 밀가루 5천200t 지원(미국의소리)
	7.19	미 NGO, 북한 결핵병원 두 곳에 수도 시설 설치(미국의소리)
	7.20	WFP “6월 대북 식량지원 올 들어 최저…전년 대비 40% 감소”(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7. 17.

■ 北인권보고관 “인권개선, 남북관계에 우선순위 메시지 줘야”(연합뉴스)

-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함.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18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조사’ 세미나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2009년) 유엔 사회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했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북한 당국이 최근 장애인의 문제에 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유엔헌장에 있는 대로 실제로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한국 새 정부는 안보 상황과 북한 인권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남북관계에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강조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7. 18.

■ “토대 좋고 자녀있는 평양주민만 해외노동 자격”(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해외 파견근로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방에서의 해외파견 근로자모집을 중단하고 평양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특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식당종업원 13명 집단탈출 사건을 계기로 해외파견 근로자는 가정토대가 좋고 자녀가 북한에 남아있는 평양시민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소식통은 16일 “올 5월부터 대외건설총국에서 시행하던 러시아 파견 건설근로자 모집이 대폭 축소되었다”며 “현재 지방에서의 모집은 중단되었고 평양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요즘 해외파견자 모집대상을 평양시민으로 한정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우리 기업소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2천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줄었다”며 “이들은 러시아 인력소개소로부터 작업장을 배정받아 왔는데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으로 250-300 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2017. 7. 20.

■ **북, 수해복구 핑계로 주민 총동원(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장마철을 맞아 파괴된 도로와 철길을 보수하기 위해 또다시 주민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장마철을 맞으며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아직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곳곳의 도로와 철길이 파괴되면서 북한 당국이 복구 작업을 위해 주민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이는 앞서 ‘VOA’가 입수한 유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임. 당시 보고서는 ‘올해 가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2015년에 비하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밀과 보리 6만과 감자 25만t 등 총 31만t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함. 44만7천t을 수확했던 지난해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임.
- 식량농업기구는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함.

2017. 7. 21.

■ **FAO “북한 가뭄 2001년 이래 최악...이모작 30% 감소”(미국의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는 20일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에서 올 가뭄이 2001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특히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힘.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7. 17.

■ 강경화 “北 인권상황 큰 우려사항”…유엔 北인권보고관 접견(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도림동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강 장관은 접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그는 이어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함. 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등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과 관여해 나가는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정부, 유엔 北인권보고관에 “北억류 한국인 관심” 요청(연합뉴스)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방한 중인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키타나 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현재 북한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천 차관은 또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베를린 구상과 남북회담 제의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을 표명했음.

2017. 7. 19.

■ 대북인권단체, ‘북한 인권범죄 지도’ 작성·공개(연합뉴스)

-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에서 총살이 이뤄진 장소, 사망자

집단 매장 추정지, 시체 소각장 등을 표시한 ‘북한 인권범죄 지도’를 작성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지난 2년간 375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글어스(Google Earth)를 활용해 이 같은 지도를 만들었다고 전함.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많이 파악된 인권범죄 현장은 총살 장소로,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북한 전역에서 290곳을 총살이 이뤄진 곳으로 지목함. 또 집단 매장 추정지와 시체 소각장 등은 47곳이 파악됐다고 이 단체는 주장함.
- 이 단체는 “사망자 집단 매장 추정지의 경우 관리소나 교화소 등 수감시설 근처이거나 일반 주민 거주지에서 떨어진 외진 곳인 경향성을 보였다”며 “파악된 매장 추정지로부터 1~4km 반경 이내에서 수십 회 이상 살해 장소들이 함께 지목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다”고 주장함.
- 이들이 지목한 인권범죄 장소는 함경북도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의 58.9%(221명)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해당 단체는 설명함.
-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지도부와 인권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부응해 인권유린을 면밀하게 기록하는 위치기반 데이터를 구축해 향후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고 밝힘.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7. 16.

■ 국내 방송 출연 탈북여성, 北 선전매체 등장해 南 비난(연합뉴스)

-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여성이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함.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공개한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되었던 전해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혜성’이라고 신분을 밝힌 탈북여성을 출연시킴.
- 전씨는 영상에서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 조국(북한)의 품에 안겼다.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종편 출연 경위 등에 관해 설명함. 전씨는 국내 종편의 프로그램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면서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함.

- 전씨는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됐다”고 탈북 경위를 밝히고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전씨가 최근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입북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2017. 7. 17.

■ **한국 정부, 남북 이산가족상봉회담·군사회담 동시 제안(미국의소리)**

- 한국 정부와 적십자 당국이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힘.
- 대한적십자사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오는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17일 북한에 공식 제의함.

2017. 7. 18.

■ **HRW “중, 라오스 국경 탈북자 체포 증가”(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뿐 아니라 중국 남쪽 지역에서까지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힘.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달 초부터 중국 당국이 윈난성에서 탈북자 그룹을 수차례 체포한 배경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중국의 심기를 다각도로 거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라오스에 거의 도착한 탈북자를 체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함.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 보내려면 북중 국경지역 탈북자 송환보다 인력이나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임.
-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관계가 꺾끄러울 경우 탈북자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가 아닌 남서부에서 탈북자 체포에 적극적이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참혹한 인권탄압국으로 역내 안보 위협인 북한을 대신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함.

■ 하태경 “김정은 집권 이래 탈북 후 재입북 25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래 북한이 탈북 후 재입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한 뒤 “김정은 집권 이전 탈북자의 납북 혹은 자진입북 자료는 (통일부에) 아예 없다”고 밝힘.
-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공식 인정한 25건의 경우 납북된 것인지, 자진 입북한 것인지 확인해보자는 요청을 통일부가 북한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순수 한국인의 경우만 북한에 억류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통지문을 통해 신변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함.
- 그는 “통일부가 순수 한국인과 탈북자 출신 한국인을 차별했음을 알 수 있다”며 “탈북자 출신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됐으면 그도 순수 한국인이다. 북에 억류돼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납치된 것인지, 자진 망명인지 확인하자고 주장했어야 했다”고 강조함.
- 또 “탈북자 중 자진해서 재입북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희귀하다”며 “통일부는 임지현씨 경우부터라도 당장 제3국이나 관문점 등 북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만나 임씨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는 요구를 북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5. 대북지원

2017. 7. 15.

■ 유엔인구기금, 대북지원 5개년 계획 마련...1천만 달러 투입(미국의소리)

- 유엔인구기금, UNFPA가 북한에 대한 5개년 지원계획을 마련함. 1천만 달러를 투입해 생식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인구 동태 파악에 주력할 계획임. 유엔인구기금이 ‘VOA’에 공개한 ‘대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예산의 43%인 500만 달러는 성과 생식보건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분야에 투입됨.
- 유엔인구기금은 북한 보건성과 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해 450만여 명의 북한 가임여성에게 생식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임약 등 가족계획 용품을 지원할 계획임. 또 북한 당국이 포괄적인 국가 생식보건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들의 출산에 필요한 기초 의료용품 (midwifery kit)과 필수 의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북한 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 대학에 임신부의 출산을 돕는 산과학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유엔인구기금은 또 6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구동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이를 위해 북한 통계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주택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임.
- 유엔인구기금은 특히 내년 북한 당국과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임. 지난 2008년 북한 당국과 함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한 이후 10년 만임.

2017. 7. 17.

■ 러시아, 북한에 밀가루 5천200t 지원(미국의소리)

-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약 2천500t이 17일 북한에 도착함. 러시아는 인도 주의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사업에 지원한 밀가루 2천400여 t이 17일 저녁 북한에 도착한다고 밝힘.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밀가루 204t은 함경북도 청진에 하역됨.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대외연락부 김성철 대표는 이 밀가루가 트럭 편으로 양강도 식품공장으로 보내져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대사관은 나머지 2천300여t이 현재 배편으로 운송되고 있다며 18일 함경남도 흥남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국 가운데 하나라고 대사관은 밝힘. 러시아는 지난해 3월과 5월에도 WFP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 2천500여t과 2천400여t을 각각 지원함.

2017. 7. 18.

■ 미 NGO, 북한 결핵병원 두 곳에 수도 시설 설치(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황해남도과 황해북도 내 결핵병원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 시설 설치를 완료함. 이 단체는 18일 발표한 소식지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방북하고 돌아왔으며, 이 기간 황해남도 신원 내 제 3결핵요양소와 황해북도 제3결핵병원에 수도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힘. 또 평양 제3 결핵병원 소아과 병동에 급수전과 물탱크를 설치했다며, 8월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함.

- 이 단체는 현재까지 북한 내 결핵, 간염 의료시설 15곳에 태양력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 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 적어도 세 곳 이상에 수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2017. 7. 20.

■ WFP “6월 대북 식량지원 을 들어 최저…전년 대비 40% 감소”(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세계식량계획은 19일 발표한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탁아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45만8천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강화식품 1천335t을 지원했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량계획은 탁아소 영유아 어린이 한 명 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6g과 영양과자 40g을,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2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함. 이는 지난 5월과 비슷한 규모로, 올 들어 최저 수준임.
- 세계식량계획의 6월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1월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감소함.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